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루카 1,46-47)**



사진 장소 명동대성당

예수님과 온전한 일치로 승천의 영광을 안으신 성모님. 당신은 용기 있는 fiat(응답)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항구한 순명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의 부릅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멀어지고 버려지는 이웃들에게 머뭇대지 않는 열정으로 다가서게 하소서. 물리칠 곳이 없는 절박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모님을 늘 기억하게 해주소서.

이혜련 분다 | 가톨릭사진가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루카 1,28)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올려지심을 경축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온 세상 곳곳에 가득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한 신앙인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희망의 징표입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신앙에 충실하면 구원을 받아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38)

성모 승천 대축일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45년,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의 승천 대축일에 우리나라는 고통스러운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해방에 뒤이은 남북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민족 모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더 큰 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의 모든 성당이 폐쇄되고 수도원은 해산되었습니다. 또한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은 무자비하게 연행되어 고초를 겪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는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최후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북한 동포들과 성모 승천 대축일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성무 활동을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성직자도 없습니다. 서울대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를 맡고 있는 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저는 해방 75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 신중하게 기도하고 분별하여 평양교구를 파티마의 성모님께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봉헌식은 명동대성당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봉헌은 1927년 평양교구가 설정된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봉헌식의 장소가 평양이 아닌 서울이지만, 평양교구와 서울대교구의 영적 일치성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평양교구를 위한 특별한 강복을 요청했습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평양교구를 파티마의 성모님께 봉헌할 때 성모 마리아의 보호를 특별히 청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봉헌식을 통해 북한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교황님 서한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께

친애하는 나의 형제 추기경님!

지난 7월 22일 그대가 보내준 반가운 서신을 받고, 8월 15일 평양교구를 파티마의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고자 함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이 특별한 기회에, 그대와 참석하는 모든 사제들, 수도자들과 평신도 여러분께 다정한 인사와 축복의 기원을 보냅니다. 저는 이 예식의 은총으로 여러분 모두의 마음 속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깊어 지리라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분열을 극복하고, 정의롭고 형제적인 관계를 엮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게 해 줍니다.

이 예식이 광복 75주년 기념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칭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회심과 생명문화의 승리, 화해와 형제애,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

적인 평화를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급속하게 편협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류의 가치와 침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인간 발전을 증진하며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과 함께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올리는 봉헌예식을 위해 모인 그대와 모든 이에게 경의를 표하며, 주님 안에서 평화의 기쁨을 약속하는 사도적 축복을 보냅니다. 또한 저를 기억하시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로마, 성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0년 7월 24일
프란치스코

파티마의 성모께 바치는 봉헌문

티 없으신 성심의 파티마 성모님,

저희는 당신이 백삼 년 전에 주신 세계 평화를 위한 회개와 보속의 생활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평화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 교황 성하의 뜻에 따라 이제 저희는 마음을 열고 정의로운 형제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분쟁을 극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음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지난 삶을 반성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받들어 회개와 보속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청하오니 한반도의 평화를 전구해 주소서.

티 없으신 성심의 어머니,

당신이 하늘에 불리움을 받아 오르신 이날은 저희 겨레에게 있어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동시에 분단이 시작되는 아픔의 순간이었음을 당신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 현실을 당신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저희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남북 분단의 아픔을 피부로 느끼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위로를 건네주소서.

티 없으신 성심의 어머니,

이제 저희는 이런 분단의 아픔을 믿고 당신의 보호하심에 의탁하며 평양교구와 북한 교회를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오니 저희 봉헌을 받아 주소서. 그리하여 인간에게 하느님이 새겨주신 신앙의 자유를 평양교구와 북한 교회에 얻어주시며 항상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시대가 하루빨리 열리도록 도와주소서.

티 없으신 성심의 어머니,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인 이곳을 다방면에 걸친 양극화로 아픔을 겪고 있으며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나눔, 생명 존중의 문화와 형제적 사랑의 문화를 건설하는 당신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서로를 존중하여 진정한 인간 가치와 존엄성을 살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연결하는 화해와 평화, 나눔의 굳건한 다리가 되도록 전구해 주소서.

아멘.



해방 75주년을 맞이하며

교구 내 모든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에게 보내는 서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6월 25일에 서울대교구장이며 평양교구장 서리인 저는 명동 주교좌 대성당에서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이 땅의 평화와 화해, 자유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 미사에 교황 성하께서는 사도적 축복을 내려주시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해방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한반도의 한 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였고 다른 한쪽은 최소한의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한반도의 분단과 겨레의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저는 평양교구장 서리로서 평양교구를 파티마의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해방 75주년을 맞아 평양교구를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한다는 저의 지향에 사도적 축복을 담은 서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서한에서 교황님은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정의로운 형제적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도록 복음에 귀 기울이라고 초대하십니다. 또한 교황님은 회심과 생명문화의 승리와 형제적 사랑,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촉구하십니다. 아울러 진정한 인간 가치와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지속적인 인간 발전을 촉진하고, 서로 간의 다리를 놓아야 할 책임을 통감하기

를 촉구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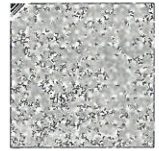
저는 오늘 파티마의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평양교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침해될 수 없는 자유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허락하시도록 청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구 내의 모든 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대교구의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모든 본당은 파티마의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평양교구를 봉헌하는 교구장의 지향에 따라 2020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교회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한다.
2. 모든 교구민들은 지속적인 기도, 특별히 묵주기도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희생과 애공을 통해 이런 교구장의 지향에 동참한다.

2020년 8월 12일
주님과 함께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염수정



누릴 수 있도록, 복음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실천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로 각자의 마음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회심, 참회 및 희생과 봉사를 통해 '평화의 사도'로 주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디 성모님의 보호와 전구를 통해 북한교회도 하루빨리 기쁨과 평화 속에 다시 주님께 찬미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남북한 상호교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문제는 무력이 아니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참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남북한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우리 사회의 참 평화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적 분열과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 부익부 빈익빈의 가중 등 과거의 어느 시대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은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와 경제 우선주의의 유혹에 빠져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편의성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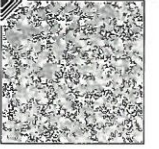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일치하여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

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확신해야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 (이사 11.6) 세상,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고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불안과 불신을 극복하여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룹시다. 세상에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함은 사회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신앙인에게도 중요한 책무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성모님의 바다 같은 큰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불안과 미움, 부정적인 요소가 모두 해소되어 사랑과 평화로 흘러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빕니다.

2020년 8월 1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유 열 수 경



입당송 | 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제1독서 | 묵시 11,19ㄱ; 12,1-6ㄱㄷ,10ㄱㄷ

화답송 | 시편 45(44),10,11,12,16(◎ 10ㄷㄹ)

-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 들어가,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제2독서 | 1코린 15,20-27ㄱ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음 | 루카 1,39-56

영성체송 | 루카 1,49,48 참조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감사송

(영광스러운 마리아의 승천)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넷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